



(주)에이엔비, 운행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시스템 및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출시 예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안보융합연구소와 영상기반 인공지능 신경망 개발 완료

기사입력:2021-07-22 15:38:28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시스템개발 전문업체인 (주)에이엔비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과학기술원 안보융합연구소, 한남대학교 등과 다양한RnD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상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진= 에이엔비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및 시스템개발 전문업체인 (주)에이엔비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기술 매칭을 통해 2021 하반기 인공지능(AI)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에이엔비는 올해 6월 설립된 신생 연구소기업으로, 영상기반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적재 불량 차량 단속시스템, 운행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시스템 등 안전과 생명을 키워드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안보융합연구소, 한남대학교 등과 다양한RnD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상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확

보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 매칭된 '안전모 착용 비전 감시시스템 및 방법' 관련 기술과 한국과학기술원 안보융합연구원과 개발 완료한 영상기반 인공지능 신경망(YOLOv3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행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등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주)에이엔비 이현우 대표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최우선 개발할 계획이며, 개발하면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들은 타 업체에서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무료로 공유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는 물론 3년내 베트남, 인도 등 신흥 공업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영상기반 인공지능 무인 단속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